

# 기술인의 이직이 줄고 있다

## 경기 부진 탓...생활여건 중시하는 성향도 한 몫

인력난의 한 유형인 '이직(移職)'이 줄고 있다. 최근 극심한 경기 부진의 어두운 그림자가 업계에 드리우고 있는 시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이 소식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경기 부진이 주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인력난이란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복합돼 있다. 필요 인력에 비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의미의 '절대 인력 부족'과 만족할 기술을 지닌 인력이 부족하다는 '능력 기술인 부족', 기존 인력의 이직으로 인해 필요 인력을 제때 충원하지 못하는 '재충원 인력 부족', 직급에 따른 필요 기술인이 부족한 '직급별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이다.

이 중 절대 인력 부족보다 제과점 업주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것은 기술인의 잦은 이직이다. 현재 기술인들이 한 업소에서의 평균 근무 연수는 1.5년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게 통설이다. 이직의 요인으로는 인격모독 등 업주와의 갈등, 나은 근무 여건과 보수를 찾아 옮기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 중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한 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기술인의 임금 수준은 경력에 따라 서울 5인 업소의 경우 초보 기술인은 45만~60만원, 3년 미만 65만~80만원, 3~5년은 80만~100만원, 5~7년은 90만~150만원, 7년 이상 공장장급은 180만~250만원대에 형성되고 있다. 이 중 부르는 게 값일 정도인 3년 전후의 기술인들은 80만원~120만원까지 임금 폭의 변동이 가장 심한 편이다.

### 경기 부진이 이직 감소 현상의 주원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3년~5년 전후의 기술인들의 이직이 가장 심하며 1~2년 차 기술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들 3~5년 차 기술인들은 별도로 독립하거나 작은 업소의 공장장으로 높은 보수를 받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타 직급의 기술인도 몇 번 자리를 옮기면서 과거보다 직급과 보수 면에서 몇 단계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직이 빈번하곤 했다. 이 결과 경력은 3년 내외면서 몇 번의 이직을 통해 높은 보수와 함께 공장장으로 승격되는 예가 많았다. 이로 인해 공장장은 많으나 능력있는 공장장은 찾기 힘든 '능력있는 기술인 부족' 현상을 초래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이직 현상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주된 요인으로는 제과점 경기 부진이 꼽히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새로 점포를 오픈하는 경우나 제품 수준을 높이기 위해 높은 보수를 주고 스카웃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해 말부터 심화된 경기 부진으로 올해 들어 20% 가량 매출이 하락해 회복될 줄을 모르고 있다. 경기 부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과거 1~2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산량 감소로 잠재되어 있던 매출 부족분이 최근의 매출 하락으로 상쇄됨으로써 인력 재충원이 필요치 않게 된 결과를 낳았다. 이외에 가장 큰 이유로 매출 하락으로 수입이 감소한 제과점이 지출을 줄여할 판에 높은 보수를 주고 굳이 인력 스카웃을 할 필요가 없어 이직과 관련된 여건이 봉쇄된 것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경기 부진 외에 기술인들의 성향도 이직 감소에 한몫하고 있다. 요즘 젊은 기술인들은 높은 보수는 기본이고 근무 여건과 퇴근 후 여가 생활에 대한 주변 여건 등도 중요시한다. 따라서 현재보다 못한 주변 여건 지역으로의 자리옮김을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실제로 이런 면에서 양호한 서울의 강남은 이직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직은 공동의 산물, 상호간 노력 필요

그러나 모든 것에는 상대성이 있듯 이점은 반대로 기타 지역 점포들에게는 괴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도시의 점포들은 제품 수준을 올리기 위해 우수 기술인을 스카웃하려고 해도 힘든 실정이다. 그 결과 임금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인력 부족은 여전한 어려움을 낳고 있다. 이런 현상은 6대 광역시를 비롯한 대도시를 제외하곤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기술인 이직의 감소는 기존 점포의 처지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이 역시 업계 전체로 볼 때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기존 점포의 경우 기술인의 이직이 줄어들면 좋겠지만 현재 신규 점포의 증가가 폐점을 상회하는 현실 속에서 새로 오픈하는 제과점은 생산을 책임질 주요 인력의 조달을 기존 점포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 기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은 조건을 찾는 행위를 무작정 비판만 할 수는 없다. 현재의 잦은 이직 현상은 이런 기술인의 성향과 우수 기술인을 스카웃하려는 업주의 욕구가 빛은 공동 산물이기 때문이다. 단 기술인의 이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리옮김 그 자체보다는 눈앞의 금전적 이익만 추구함으로써 파생되는 여러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즉 몇번의 이직을 통해 직급과 보수의 상승을 꾀하는 기술

인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 짧은 경력의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공장장으로 양산되는 행태는 업계나 기술인 모두에게 손실이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잦은 이직은 시일이 경과되면 기술 축적의 한계성으로 기술 발전은 물론 더 이상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없어 손해라는 한 장기 근속 기술인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 크다. 현재의 기술인 이직 감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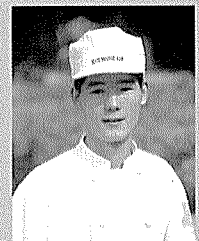


경기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경기 부진의 정도에 따라 이직의 많고 적음이 유동적일 뿐 문제는 상존해 있다. 따라서 기술인의 이직과 관련해 업주의 경우 기술인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과 적절한 임금 수준 보장, 기술 발전 계기 부여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기술인도 이직이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등 서로 노력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K]

〈글/박종선〉

###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 “기술 축적 힘들고 신뢰성 잃어 득보다 실”



내가 중급 직책에 있었을 때 이는 사람 하나가 기술은 부족하지만 몇번의 이직을 통해 나보다 빨리 공장장이 되고 나은 보수를 받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잦은 이직은 기술 축적이 힘들다. 일정 기간은 금전적으로 유리하겠지만 능력 부족의 한계로 더 이상 높은 보수를 받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더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해선 다시 기술을 축적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잦은 이직이 신뢰성을 잃게 한다는 점이다. 기술인의 꿈은 자신의 점포를 갖는 것이다. 이때 자기 힘만으로 개업하는 경우는 드물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기계나 재료 구입시 부족액은 형편이 나아질 때 갚도록 양해를 구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신뢰성도 없고 이로 인해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사람에게 누가 도움을 주겠는가? 잦은 이직은 여러모로 손해일 경우가 많다.